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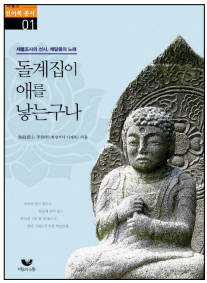
#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7 ~ 5/13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담마빠대(법구경)-베알리어 직역	일야	불광출판사
2	달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웅화	7	선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항적	조계종출판사
3	도교대학 불교학과	정성교	동아시아	8	불교의 모든 것	곽철환	행성비
4	마음의 정원을 거닐다	지안	불광출판사	9	그대에게 가는 길 - 아함의 말씀	무원	맑은소리출판사
5	아들에게 남기는 어머니의 마음공부	최혜자	운주사	10	혼자만 깨우치면 뭘 하겠는가	진오	리더스북



## 깨침의 이야기들, 선화(禪話)의 세계



**동계집이 애를 낳는구나**  
화정거사 이계목 지음  
비움과 스통 펴냄  
2만8천원

“깨치면 부처와 같지만 / 다생에 찌든 버릇 아직 그대로네, / 바람 자도 물결은 출렁이고 / 이치는 드러나도 망상은 아직 없네” 보조국사의 계송이다.

책은 과거칠불을 비롯하여 마하가섭존자를 비롯한 33조사, 원효대사를 비롯한 27 고승 대덕들과 저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깨침의 순간에서 언어로 남긴 오도송·열반송·전법계·수행송 등 선시와 선문답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인 화정 이계목 거사가 40여년의 오랜 수행체계를 바탕으로 제불조사의 경지를 엿보고자 평소 애아왔던 전법계, 오도송, 열반송, 수행송 등 선시와 선문답들을 쉽게 풀어 쓴 해설을 함께 실고 있다.

선시(禪詩)는 깨달음의 언어이다. 상식의 범주를 뛰어넘는 격 밖의 소리를 담고 있다. 수행이라는 용광로에서 녹여낸 진금(眞金)이 선시이다.

깨달음이 전제된 오자(悟者)의 소리를 담고 있는 것이 오도송(悟道頌)이다. 그 형식은 오언(五言) 칠언(七言)의 절구 계송(偈頌)으로 되어있다. 임종계(臨終偈)와 열반송(涅槃頌)은 선사(禪師)가 열반에 들 때 읊는 노래이다. 생과 사를 달관한 안목으로 생사일여(生死一如)의 경지를 읊고 있다.

스승과 제자가 심법(心法)을 주고받는 것을 전법계(傳法偈)라고 한다. 깨친 안목으로 스승과 제자가 하나가 될 때 마음과 마음으로 주고받는 것이 전법계이다.

오도송, 열반송, 전법계, 수행송 모두가 선시에 속한다. 선시는 깨달은 자의 소리이며 그 소리는 말과 문자 밖의 소리다. 그래서 보통 우리 범부의 소견으로 보면 알 수가 없다. 부처님 이후 수많은 수행자가 수행의 결과로 얻어진 그 세계를 문자를 빌어 노래하는 것이 선시이다. 격외(格外) 소식을 문자에 의존하는 것이 또한 선시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선가(禪家)에서는 마음을 중요하게 얘기하지만 마음의 실체를 얘기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또한 깨달음을 얘기하지만 깨달음의 실제 또한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마음’이라, ‘깨달음’이라고 이름(名)할 뿐이다.

제1부, ‘과거7불과 33조사편’에는 과거칠불과 선종 역대 조사의 전법계가 실려 있고, 제2부, ‘고승, 대덕편’에는 고승·대덕



조주 관음원의 잣나무

### 과거칠불·33조사·고승 대덕·저자의 오도송·열반송·전법계·수행송 등 깨침의 순간에 읊은 선시 소개, 해설

의 오도송과 수행송, 열반송을 모아 번역하고 자세히 해설한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제3부, ‘생활선편’에서는 저자의 견도송(見道頌)을 비롯한 자작 선시들과 그동안 수행을 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바를 소개하고 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은 뭘니까? 물론, / 조주 스님 대답이 뜰 앞에 잣나무라

네. / 어찌 경계로 조사의 뜻을 보입니까? / 또 물으니 조주 스님 또 뜰 앞에 잣나무라 하네.” 너무나 잘 알려진 조주선사의 백수자계(柏樹子偈)이다. 해설 편에서 저자 화정거사가 “조주 스님 뜰 앞에 잣나무는 / 창밖에 붉은 복숭아 꽃 같고 / 다시 문기를 어째서 그런가? 묻는다면 / 눈은 가로 찢어지고 코는 세로로 찢어지니라.”고 계송으로 화답하면서 “눈 밝은 납승은 이 계송에 입을 열어보십시오”라고 한다. 이처럼 뜻 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들의 뜻은 문자로 전하고 싶지만 눈으로 읽는 문자와는 또 다른 ‘문자’로, 눈만으로는 읽을 수 없다. 이 뜻 없어 보이는 이 ‘뜻’은 이심전심으로 마주하는 문자 아닌 문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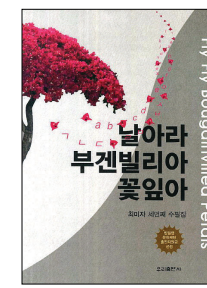
철순의 노 거사가 평생의 마음공부를 결산하여 풀어놓은 자상한 선시 해설은 깨달음을 향한 징검다리라 되기에 충분하다. 오도송과 전법계, 열반송은 깨침의 순간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선시들이어서 관련 선화(禪話)와 선문답을 곁들인 흥미진진한 해설은 참선 공부의 지침서로서 손색이 없다. 특히 선어록과 유식(維識)에 달통한 저자는, 평소 출·재가 참선 수행자들이 궁극해 하는 부분들을 진솔한 체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어 간혹선 수행자들에게 더없이 유익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박재완 기자 wanih@hyunbul.com

## 자연과의 소통, 생명에 대한 공경

### 날아라 부겐빌리아 꽃잎아

최미자 지음 | 우리출판사 펴냄 | 1만원



재미 수필가이자 언론인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최미자의 세 번째 수필집이다. <레몬향기처럼>(2007년)과 <샌디에고 야망>(2010년)으로 국내 독자와 만난 바 있는 작가는 이번 책에서도, 자연과의 소통이자 생명에 대한 공경을 통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책에는 표제 수필인 ‘날아라 부겐빌리아 꽃잎아’를 비롯해 총 43 편의 작품이 실려 있으며, 한국어 5부와 영어수필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는 평소 생에 대한 깊은 의문들, 즉 부자와 가난한 사람, 행운과 불행, 평등과 불평등, 정의와 불의 특히 삶과 죽음 등의 의문을 품고 세상을 관찰해오고 있다. 그러한 작가의 사유는 그대로 작품으로 이어진다.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소소한 일상에서 삶의 본질을 끄집어내어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의 작품들은 삶을 경외하는 작가의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제 수필인 <날아라 부겐빌리아 꽃잎아>는 한마디로 최미자 수필의 공간에인

토포필리아와 생명에인 바이오필리아를 잘 표현된 대표작이다.

그는 왜, 무엇 때문에 글을 쓰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듯 부겐빌리아의 꽃으로 그 답을 대유하고 있다. 힘든 미국 이민 생활 중에 어렵게 정착한 세 번째 집에서 처음 보게 된 부겐빌리아꽃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다.

환경을 바꾸고 난 뒤 그동안 피지 않았던 꽃잎이 피기 시작했고, 신기하게도 죽음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심각했던 저자의 병(疴痛)이 나아지기 시작한다. 이처럼 수필은 ‘생명’에서 시작한다. 생명에, 즉 바이오필리아이다. 부겐빌리아는 다른 아닌 정경 통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부겐빌리아는 고국에 살 때나 떠나서나 몇 번씩 이사를 해야 했던 화자로 하여금 생활의 안주와 함께 새로운 꿈을 향하여 비상하려는 듯 움츠렸던 그의 날개를 꽃잎처럼 조금씩 펼치고 있다.

제1부의 ‘하늘을 날아가는 저 새들은’ 생명에인 바이오필리아를 주제로 하고 있다면, 제2부의 ‘오, 반가운 우리 태극기’와 제5부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는 주로 공간에, 토포필리아인 모국과 그 땅에 뿌리박고 살아가는 민족애를 담고 있다.

박재완 기자

## 사찰 벽화 통해 읽는 불교철학

### 10대와 통하는 사찰 벽화 이야기

강호진 글 | 돌 스튜디오 그림 철수와 영희 펴냄 | 1만3천원



책은 사찰 외벽에 그려진 벽화를 통해 16가지의 불교철학을 살펴보는 청소년을 위한 불교 인문 교양서다.

한국의 고찰은 우리민족의 전통적 사유와 예술이 녹아 있는 대표적인 공간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인에게 사찰이란 공간은 종교를 떠나 문화적 정서의 바탕에 관여하

는 배경으로, 세계관과 예술관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사찰에서 많은 것을 만나게 된다.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불상의 장엄함, 불상 뒤에 모시는 후불벽화의 화려함, 비바람을 견디며 천년을 넘겨 서 있는 석탑과 석등의 강인함, 선인들의 건국축미가 옷맛이 담겨 있는 오래된 전각들의 수려함, 그리고 나무나 청동 또는 유리 등으로 만들어진 불교 공예품의 섬세함 등이 우리가 사찰에서 발견하게 되는 아름다움이다. 하지만 사찰의 모든 것이 관심과 애정의 대상이 되어온 것은 아니다. 사찰을 찾은 이들이 가장 먼저 반겨주지만 우리가 그동안 무심하게 지나쳐버리는 것이 있다. 바로 사찰 외벽에 그려진 벽화다. 전각 외벽에 그려진

벽화들에선 뛰어난 예술성도 찾기 어렵고 유구한 역사성도 발견하기 어렵다. 그저 텅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장식 정도로 취급받기 쉽다. 하지만 벽화는 의외로 아주 오랜 역사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찰의 벽에 무언가를 그려서 장식하기 시작한 때는 불상이 등장한 시기보다 앞선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지시로 기원정사에 여러 그림이 그려졌다고 전한다. 한국에서도 삼국시대부터 사찰 벽화가 활발히 그려지기 시작해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화려한 꽃을 피웠다. 사찰 벽화는 불교 경전, 역사, 사상 등이 녹아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불교 공부에 훌륭한 재료가 된다. 벽화가 설명 없이 그림으로만 압축되어 있어서 그 의미를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번 책을 통해 재미있고 풍성하게 불교를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불교와 사유와 실천’에 대한 이야기는 우

리가 불교를 쉽게 이해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인욕, 업력, 윤회, 출가, 화엄, 알과 수행 등의 16가지 주제로 구성했으며,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불교사상을 접목시켜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 전달 차원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삶과 불교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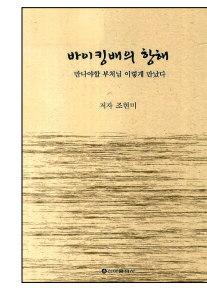
저자는 “불교란 중생이 지닌 이기심의 어둠을 걷어내고 자신이 가진 본래의 빛을 밝혀서 당당하고 아름답게 모든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자는 소박한 가르침과 실천 방법이다.”고 말한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내세워 이상향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 정토를 세우라고 말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종교가 불교라는 것이다. 책은 청소년들이 불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고 우리 삶과 연관된 불교를 새롭게 인식하고 인문적으로 만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기자

## 불교가 가져다 준 행복

### 바이킹배의 항해

조현미 지음 | 신아출판사 펴냄 | 1만6천원



“불교와의 처음 만남은 바로 이때 기분 전환 여행의 길, 이태리 로마로 떠난 2002년 여름이었다.” 책은 저자가 불교와 만나고 불교를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알게 된 것들을 이야기 하고 있다. 미국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동양의 춤이란’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는 무용가 조현미의 불교와의 인연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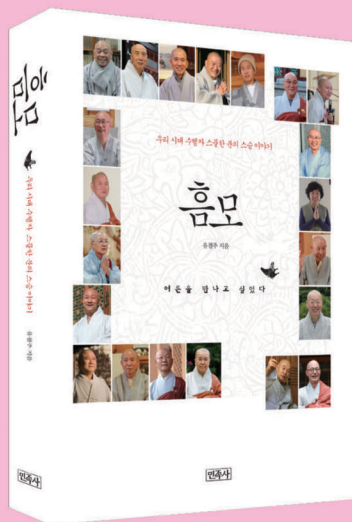
그는 남편과의 이태리 여행 중에 보게 된 스키 스님의 저서 <선의 마음, 초보자의 마음>이란 책을 보게 되면서부터 불교와 만나게 된다. 당시 불교를 전혀 몰랐던 저자에게 책 속의 생소한 단어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하면서도 그녀를 불교로 끌어들이었던 것이다.

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5장 ‘부처님의 나라, 불교의 나라, 인도 순례’에서는 바이살리를 시작으로 고대 수도인 라자그라하,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신 보드 Gaya, 그리고 부처님이 전법을 퍼셨던 바라나시와 사르나스, 열반에 드신 쿠시나, 태어나신 룸비니, 그리고 사바티 등을 순례하면서 쓴 기행문이다. 지명에 관련된 역사와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적고 있다.

박재완 기자

## 우리 시대 수행자 스물한 분의 스승 이야기

어른을 만나고 싶었다



### 흙모

금생은 안 태어났다 생각하고 공부하다 죽어라, 세상의 인재가 되어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몸 바치라는 스승들...

“머리만 쥐었다고 중 된 것이 아니다. 거기에 맞게 살아야 한다. 좋은 평생 정진하다가 눈두렁 베고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야기. 중노릇이 쉬운 기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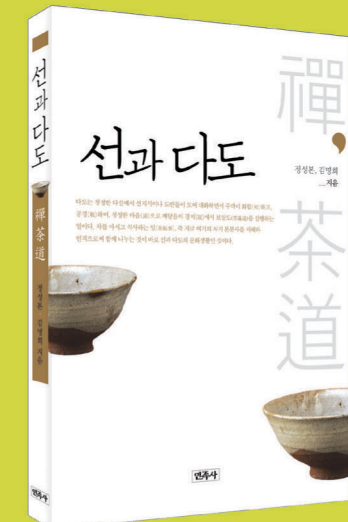
■유철주 지음 | 변형 신국판 372쪽 | 15,000원

### “어른이 없는 시대에 바치는 진정한 어른 이야기”

우리 시대 스물한 명의 수행자가 인생길을 열어준 은사스님에 대한 회고와 마음 깊은 그리움을 전하는 책 <흙모>. 흙모하는 스승들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제자는 어느새 중생의 흙모를 받는 또 다른 스승이 된다.

## “차를 마신다는 것은 우주의 생명을 마시는 것”

선(禪)에 대한 이해를 넓혀, 다도생활에 흥미와 깊이를 더하는 책



### 선과 다도

취향에만 몰두하는 오늘날 다도에 일침을 가하다!

참된 다도생활로 안내하는 다도의 새 지침서 다도는 단지 차를 마시는 행위가 아니다! 다도 생활을 통해 불성을 깨닫고 지혜와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 선과 다도는 “선(禪)과 차(茶)는 하나”라는 선불교적 관점에서 다도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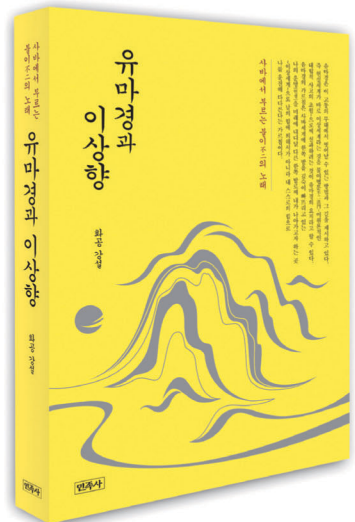
■정성본, 김명희 지음 | 신국판 296쪽 | 13,000원

### “자아 힐링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 바로 선다(禪茶)의 힐링”

참된 다도생활로 안내하는 다도의 새 지침서 다도를 통해 자유로운 정신과 편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각박한 삶 속에 무너진 자신을 일으켜 세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과 다도’는 좌선과 명상과 같은 선다생활의 방법들을 소개한다.

## 사바에서 부르는 불이(不二)의 노래

깊이와 넓이를 모를 정도로 방대하여 팔만사천대장경이라 불리는 불교경전 불교의 핵심·진수가 담겨 단 한 권의 경전으로 손꼽히는 유마경의 세계를 드라마틱하게 펼쳐놓았다.



### 유마경과 이상향

“유마경의 번역과 더불어 해설 내지는 잡다한 군더더기를 덧붙였는데, 이는 독자에게 본문 이해와 함께 일반적 불교 교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도였다. 불교 교리를 연구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도 유마경과 불교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도 읽힐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도한 것이다.”

■회경 강의 | 신국판 양장본 604쪽 | 29,500원

### 대한민국호를 타고 함께 업을 짓고 사는 우리들...

이즘 세월호 참사로 혼돈과 좌절과 아픔 속에 헤매는 우리들의 마음 치유를 위해, 이 땅을 이상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책. 고통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사바세계, 불교는 물론이고 동서양 철학을 꿰뚫은 회경 스님이 고통의 근본 원인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민족사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빌리는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s.com 이메일 minjoksas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총합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